

보도자료

2026. 04. 08.(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 의 : 방송미디어본부 AI미디어융합TF 박원준 팀장 (061) 350-1390
배 포 : 경영기획본부 ESG혁신홍보팀 최근수 대리 (061) 350-1325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'도쿄 정보 기술(IT) 전시회'

초격차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한국관 운영

- 초격차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과제(프로젝트) <보안·네트워크> 분야
한국관 운영으로 일본 판로 개척 및 협력망(네트워크) 구축 지원 -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이상훈)은 오는 4월 8일(수)부터 10일(금)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'일본 도쿄 정보 기술(IT) 춘계(Japan IT Week) 전시회'에서 초격차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(AI) 및 사업 자동화, 소프트웨어(누리클) 및 앱 개발, 사물인터넷(IoT) 해결책(솔루션), 정보 보안 등 4개 정보 기술(IT) 박람회(엑스포)가 동시 개최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정보 기술(IT) 통합 전시회로, 매년 전 세계 현지 정보 기술(IT) 관계자, 구매자(바이어) 등 1,100여 개사, 약 6만여 명이 방문한다.

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초격차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▲기원테크 ▲오내피플 ▲에스프레스토 ▲큐비트시큐리티 ▲페어리테크 등 5개 기업과 한국관을 운영하여 국내 첨단 보안·네트워크의 우수한 기술력과 해결책(솔루션)을 선보이기 위해 전시 참가와 현지 교류(네트워킹)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.

특히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한국관 이외 별도로 참여하는 ▲아이시티케이(ICKT) ▲체크멀 ▲와탭랩스를 포함하여 초격차 과제(프로젝트) 보안·네트워크 기업 40개사를 홍보하는 초격차 홍보관을 함께 운영하여, 일본 보안 산업 동향 및 현안(이슈) 정보를 파악하고, 현지 구매자(바이어)들과 협력망(네트워크)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“이번 일본 전시회 참가는 한국 초격차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의 초석이 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일본을 넘어 해외 시장(글로벌 시장)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초격차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AI미디어융합TF 박민건 과장(☎ 061-350-142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